

# 지역내 농축산 작목반 및 단지화 사례를 위한 연구

문종동

(경북 금릉군, 지품한우번식작목반)

## I. 서론

70년대 자금자족의 배고픈 시절을 지나 80년대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산업화 추진과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농업이 해가 갈수록 젊은 농군들의 이농현상과 농산물 자유무역(UR)이다, 가트협약이다하여 점점 어두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녀교육, 결혼, 스트레스 해소 차원의 문화적 공간의 절대부족, 일관성 없는 농업행정의 부재 등이 겹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준산간지대 (해발 100M~300M)에는 도시근교 농업, 평야지대와는 대조적으로 뚜렷한 소득원을 찾지 못하고 캄캄한 그믐밤을 가듯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몇몇 고향농촌 발전에 뜻있는 농민 후계자 마저도 고향을 등지게 되고 문전 옥답은 잡초가 무성하며 60세 이상의 나이 많은 농민들 뿐이어서 삭막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 1. 연구의 발단

본인은 선천께서 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72년) 방황하던중 가나안농군학교의 창립자이자 막사이사이상 수상자이신 고"김용기"장로님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란 저서를 우연하게 읽게 되어 심취하였습니다.

그 책엔 "십상촌"이란 것이 있어 열가구의 농가가 모여 집단 농장을 꾸미고 공중목욕탕, 오락시설, 놀이터등 이를테면 모든 문화시설을 갖추고 도시못지 않는 복지 농촌을 이루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면관내에서 가장 천수답지역이고 가난한 우리 마을을 잘 살게 할수 있다는 확신을 책에서 터득하고 학교대신 지도소를 선택하여 차원높은 교육을 받고 선진 견학을 하던 중 천수답 논을 개조하여 과수원(자두,사과)을 조성하고 과수에 필요한 퇴비를 얻기위해 소를 먹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일벼가 권장되고 하던 시절이라 천수답이라지만 과수나무 심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4H 중앙교육때 어느 대학교수가 80년대 후반이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 고기와 과일을 많이 먹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가르침이 본인을 일깨워 준 덕분이지요.

천수답을 개조하고 과수원 식재에 열을 올리던중 '79년도에 우리 김천, 금릉지역에서 제일 처음 딸기 비닐 하우스를 300평에 설치하여 2년간 재배하여 보았으나 일조량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그만둔 일이 있던 후로 줄곧 현재까지 10여두의 번식우를 사육해 본 결과 우리 지역에서 가장 소득이 높았으며 과수나무와 축산은 서로 떨어질수 없는 작목이며 소에서 나오는 축분은 과수원에 보내져 폐수걱정이 없고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수익금은 축산에 재투자 할수 있는 실용성이 있습니다.

70년대에 면관내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마을이 현재는 가장 농업소득이 높으며 젊은층이 많아 30호의 농가에 30대 후반 50대 초반 까지가 15명이나 되며 500평짜리 포장된 주차장과 12대의 차량을 보유한 잘사는 마을이 되어 있어 우선 우리 마을 청장년층을 규합하여 작목반 육성을 하고 농협차원의 장기저리 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2차로 관내에서 오지 마을인 임천리, 금평리에도 작목반을 조성하여 공동체 의식의 함양은 물론 작목반 차원의 교육, 선진지견학, 10두미만의 영세 양축농을 장기저리 자금 지원 강화등 우리 마을 처럼 한우번식우 사육과 천수답논에 과수원을 조성하여 소득 높은 마을을 이룩해 보고자 합니다.

### 2. 연구내용

모든 작물재배에 불리한 여건 (농지협소, 일조량부족, 경리정리 미비)에 처해 있는 우리 준산간지 지역에 도시근교나 주택지 등에서 사료위주로 사육하는 현재의 소사육 방식에서 완전 탈피하여 유희농지(벼수매 불가피성에 따른 유희농지 발생과 쌀개방)에 호밀,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을

재배하여 연중 소에 급여 함으로서 어미소의 불임, 사료구입에 따른 외화낭비등을 배제하고 가축분뇨는 발효시켜 파수원이나 조사료 재배지로 보내지게 되면 자연히 축산폐수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점차 농촌에도 돈버는 농업에 치중하다보니 개인주의적인 인간 관계가 팽배해 있어서 훈훈한 농촌의 인정미는 간곳이 없고 불신감만 쌓이는 실정이어서 작목반을 통한 개인 능력은 물론 연대의식을 심어 임천, 금평에 두개의 작목반을 추가 조직하여 2~3년내에 한우고기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육점을 개설하여 생산, 판매까지 하여 소득이 낮은 우리 지역에 주소득원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 3. 연구진행과정

- 〈92년 12월 1일 임시 조직회의〉

마을 전체 주민 28호중 부업으로 한우번식을 하고 있는 젊은 농민들을 규합하여 10명을 선정 첫 회의를 본인집에서 개최하고 그동안(15년간) 계속적으로 10여두의 번식우를 사육관리 해오면서 느꼈던 점과 소득측면, 사육방법 경제성등을 역설하였던 바 작목반 출범을 하기로 함.

- 〈단위농협장, 지도부장 참석하여 작목반의〉

필요성과 반원들의 해야할 일 등을 강조하고 사기 진작을 유도하였음.

- 〈회의 방법〉

매월 30일 저녁에 월례회 날짜로 정하고 회비는 월례회시 만원씩 거출하여 농협에 정기 예금하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기로 함.

- 회의록, 회칙작성

- 현재 월례회의 17회 개최

92년 12월 1일~5월 30일

- 4월 30일 농협 경상북도 지회, 농협중앙회에 지품한우 번식작목반 등록

- 5월 3일 농협중앙회 지원금 1억원 배정, 반원당 일천만 원씩(2년 거취 3년 분할 상환) 이율 5%

- 인수자 순위 결정

1차-문화동, 문옥동, 문중동, 문병철.

2차-문성동, 문교동, 문국동, 문말출.

3차-문병순, 문저동.

- 6월 9일 1차 선진지 견학

장소:농촌진흥청 농업전시관

축산 시험장(비육장, 거세우축사, 번식우축사)

인원:작목반 출범후 첫 선진지 견학이어서 부부동반으로 하고 작목반원은 아니지만 소를 사육하고 싶은 열의에 차있는 농민을 규합, 농협 지도 부장과 32명 견학

- 8월 20일 2차 선진지 견학

장소:안동 향우촌

신시장 “향우촌 식육센터”

구시장 “향우촌 식육식당”

안동군 일직면 “김일동”

향우촌 회원대 비육우축사 견학.

안동 하회마을, 안동댐, 임하댐구경

- 7월 13일 작목반장 축산 전업 농가로 선정

• 농촌진흥청 축산 시험장 전문교육 일주일 이수.

• 축산시험장에서 발간한 한우 전문서적 10권구입

• 작목반원 배포및 교육이수 내용 전달.

• 9월 20일 축사 소득약 공동구입, 공동 살포.

• 12자월 30일 반원 단합 대회 개최.

• 94년 1월 19일 “임천 한우작목반” 임시조직회의 11명.

• 94년 1월 20일 “금평” 한우 작목반 임시조직회의 8명.

• 94년 4월 5일 “임천” “금평” 두개 작목반 도지회에, 정식등록.

## Ⅲ. 본 론

### 1. 연구계획

작목반 활성화를 위한 책임 연구원은 작목반장을 맡은 본인이 하며 축산에 관련 있는 농협 지도부장, 군청 축산계장, 축협 지도주임, 3명을 보조 연구원으로 하며 월례회의시 수시로 참석케하여 기술, 행정, 자금지원등이 일관성 있게 진행 되도록 유도하고 “지품한우번식작목반”을 주축으로 오지에 자리하고 있는 임천리, 금평리에도 한우작목반을 추가 조직, 육성하여 부업으로 2~3두 사육하는 영세 양축가를 농협 차원에서 지원되는 장기저리 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30~50두 사육의 전업농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2~3년 이내에 도시(대구, 구미, 김천)지역에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을 개설할 것이며 상표 등록은 “지품한우”로 구상중.

작목반원 거의 대다수가 농업에만 전념하다보니 미래를 가능하는 사고와 농업에 대한 희망적인 열의가 부족하여 농사에서 나오는 소득은 도시에 집을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처럼 두고 있어 농업에 재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지나온 우리 농민들의 관광역행은 맹목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아무 뜻없는 소비 생활만 부추겼으며 농업에 대한 불만감만 팽배하여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목반과 작목반과의 생산적인 선진지견학 및 환경개선이 잘되어 있는 지역의 방문등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환기시키고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농촌분위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2. 축산 작목반의 필요성

점차 산업화, 국제화 되어가는 세계적인 농업의 정세속에서 비좁은 농토와 불리한 제반 여건에 처해있는 우리 준산간지 농민들이 앞으로 작목반 내지는 협업 단체를 구성하지 않고는 농업을 영위할수 없으며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지원(자금,기술)이 없으면 어려우며, 작목반을 구성하여 상호간의 의견교환, 독농가 초청강연, 선진지 견학등이 용이하므로 개인의 자질향상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다같이 잘 살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다보면 모든 것이 몸으로 해결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외롭고 고독한 직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고 새로운 마음으로 농업에 전념 할수 있도록 매달 월례회 개최, 년 2회 정도의 선진지 견학을 겸한 작목반원들의 관광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 Ⅲ. 결 론

축산 시험장, 안동 향우촌 견학을 다녀온 후 자금지원과 소값 상승에 힘입어 축사시설의 개조, 송아지 입식등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졌으며 긍정적으로 축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TV등 보도 매체에서 떠들어 대는 농산물개방소식에 주눅이 들어 있는 요즘, 지난 여름 냉해 피해마저 겹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문민정부가 들어서 몇년내에 42조원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하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농업에서 생산되는 유희자금을 대도시로 빼돌리는 대다수 농민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한 국가의 정책은 미미해지고 농촌의 근대화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월남전에도 보았듯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서 엄청난 자원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뜻이없는 월남은 결국 패망하고 흔적조차 없어 지지 않았습니까!

농업에 관계하여 종사하는 각종 단체와 공무원은 수도없이 많으나 확실한 우리 농민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UR대책이니 뭐니 떠들어 대지만 농수산부장관이 몇일사이에 바뀌고 농업정책하나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어정쩡한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을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준산간지 지역에 분위기를 일신할수 있는 작목반 육성에 연구비를 지원해준 대산농촌문화재단에 감사하며 귀 재단의 번영을 우리 작목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